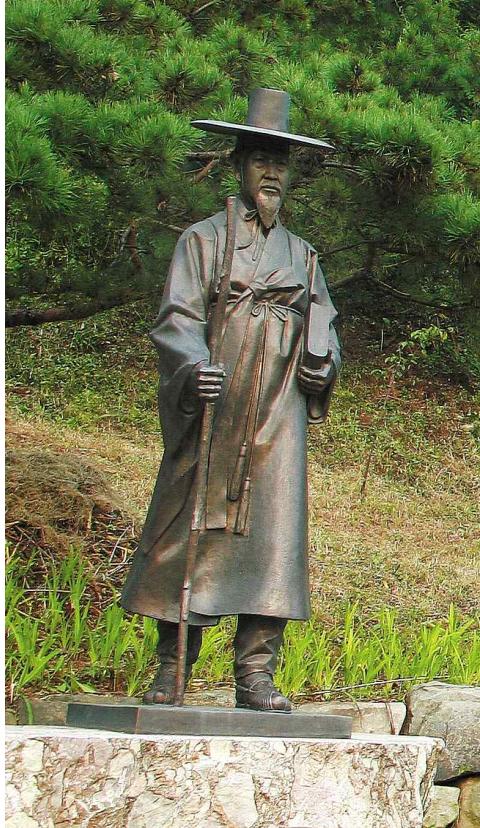


양업순례단 제18차 순례(제4차 중국 순례)

순례 일정표와 순례 요독

〈순례 일정표〉



날 짜	도시명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청 주	04:50	청주교구청 집합
		05:00	청주교구청 출발
	인천공항	07:30	인천국제공항 도착
		09:40	인천국제공항 출발(아시아나 OZ 301)
	대련공항	09:55	대련국제공항 도착
제2일	여 순	13:00	여순 감옥 순례 후 장하로 출발
	장 하	18:00	장하 호텔 도착 후 미사
제3일	장 하	전 일	조식 후 차구로 출발
	차 구		차구 경당 도착 후 미사, 순례
	단 동		용화산 순례 후 단동으로 출발
	구련성		단동 도착
	암록강		구련성 순례 후 단동 귀환
	단 동		암록강 유람
제4일	단 동	전 일	단동 호텔 도착
	변 문		조식 후 변문으로 출발
	봉황산		변문 및 봉황산 순례
			심양으로 이동하여 주교좌성당 미사
	심 양	21:09	석식 후 기차역으로 이동
제5일	장 춘	22:30	심양역 출발(고속열차 G 731)
			장춘 도착 호텔 휴식

날짜	도시명	시간	세부 일정
제4일	장 춘 소팔가자	전 일	소팔가자 도착 후 미사 소팔가자 순례 중식 후 이도백하로 이동 석식후 호텔 휴식
	이도백하		
제5일	이도백하 백두산	전 일	미사(호텔 회의실) 호텔 조식 후 백두산으로 이동 백두산 천문봉 등정 천지 조망 하산후 장백 폭포, 온천 지역 관광 중식 후 연길로 이동 석식후 호텔 휴식
	연 길		
제6일	연 길	전 일	조식 후 도문으로 이동 조중 국경 지대 관광 중식 후 길림으로 이동
	길 림		길림 주교좌 성당 미사 봉헌과 순례 석식 후 호텔 투숙
제7일	길 림	07:00	조식 후 장춘으로 출발
	장 춘	09:30	장춘 공항 도착 탑승 수속
		11:55	장춘국제공항 출발(아시아나 OZ 304)
	인천공항	15:00	인천국제공항 도착
	청 주	18:30	청주교구청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순례 지도 ○



여정 및 장소

○ 순례 여정

인천 → 대련(여순감옥) → 장하(1박) → 차구(백가점) → 압록강 · 구년성 · 단동(1박) → 면문(성황성) → 심양(주교좌성당) → 장춘(1박) → 팔가자(소팔가자성당) → 이도백하(1박) → 백두산(장백폭포) → 연길(1박) → 도문 → 길림(주교좌성당, 1박) → 장춘 → 인천(6박 7일)

○ 순례 장소

① 여순감옥(현 랴오닝성 대련시 뒤순커우구 · 旅順口區) : 한중근(토마스, 1879~1910) 의사 순국지 /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 순국지 : 대덕 산내면 어남리(현 대전 어남동) 출생, 청원에서 성장(남성면 귀래리 305번지에 사당 · 묘소 현존). 항일언론인이요 1910년 이후 광

복회·대학독립청년단·의열단 활동, 1928년 대만에서 피체, 예순감옥에서 뇌일혈로 숨곡

- ② 차구(岔溝)·백가점(白家店, 현 다롄시 광허시 룽화산진·落花山鎮 더싱가·德興街) : 1842년 최양업·김대건 선학생 유숙지(杜 회상댁) / 1849년 5~12월 최양업 선부 첫 사목지, 현재 공소 성당(요양원?) 소재
- ③ 압록강·구련성(현 단둥시 주롄청진·九連城鎮) 및 면문(현 단둥시 평청시·鳳城市 비엔먼진·邊門鎮) : 조선 교회의 밀사들과 최양업·김대건 선부 출·입국 장소요 노숙 장소, 주문도 선부와 프랑스 선교사 입국 장소(밀사들의 연락 장소)
- ④ 팔가자(소팔가자성당, 현 지린성 창춘시 허룽진·合隆鎮 바자츠촌·八家子村) : 최양업·김대건 선부의 유학지요 부재 수풀지
- ⑤ 심양 주교좌성당(선양시 沈河區 小南街 南樂郊路 40호) : 1878년 M.E.P. 베풀 주교 건립, 1900년 의화단사건 때 소실, 1912년 남만주대목구장 M.F. Choule(蘇 펠릭스) 주교 재건, 주보 : 예수성심
- ⑥ 길림 주교좌 성당(지린시 松江路 3호) : 1898년 5월 10일 북만주대목구 설정, 1924년 12월 3일 길림대목구 개칭, 1917년 성당 착공, 1927년 완공 봉헌, 주보 : 예수성심.

중국 천주교

중국 이야기

1. 지역 이야기

① 지역 구분(6개 지역)

- 동베이(東北, 동북 3성) : 헤이룽강성, 지린성, 랴오닝성
- 화베이(華北) :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
- 화동(華東) : 상하이시와 일대 4개 성
- 화중(華中) : 허난성(河南省) 등 중부 4개 성
- 화남(華南) : 광동성 등 3개 성·자치구 및 홍콩·마카오 특별 행정구
- 서부(西部) : 총칭시 및 8개 성·자치구



② 성·시 및 행정 구분

- 전체 : 22개 성(내만은 23번째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 행정구

- 행정 구분 : 省급 행정구(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 행정구) / 地급 행정구(地級市, 지구, 자치주, 땅(盟) 등) / 縣급 행정구(시할구, 縣級市, 현, 자치현, 기(旗) 등) / 里급 행정구(진, 향, 민족향 등)

③ 선양(瀋陽)시 : 무성급 시, 랴오닝성의 성도 / 인구 800만 명(시할구 : 600만 명)

중국 동베이[東北 : 만주] 지역에서 하일빈(哈爾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 랴오허강[遼河] 하류 농지에 위치. 혼하(渾河)가 시 중심을 흐른다. 본래 이름은 심(瀋).

10세기까지는 거란족이 세운 요(遼 : 947~1125)나라의 중요한 국경마을이었다. 남만주는 1122~23년에 여진족(金)에게 점령당했다가 1세기 뒤에는 몽골족에게 점령당했다. 심이란 이름은 동골 치하에서 처음으로 '심양'으로 바뀌었다. 1368년 명나라가 동골족을 몰아냈다. 17세기 초에는 만주족(淸)이 만주 전역을 지배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했으나, 1625년에는 후금이 심양을 수도로 삼고 성경(盛京 : 만주어로는 '묵데')으로 개명했다. 1644년 명을 몰아내고, 만주족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수도는 베이징[北京]으로 옮겨졌지만, 성경은 지배 왕조의 옛 수도로서 특권을 누렸다. 베이링[北陵]에 있는 청조 초기 황제들의 무덤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적지 중 하나로 꼽힌다.

1895년 이후 만주에 대한 침략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빌연식으로 핵심적인 분쟁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러일 전쟁(1904~1905) 중인 1905년 2월 19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 결과 일본이 선양을 차지했다. 1931년 9월 18일 폭파사건이 터지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중국군의 것으로 보이는 폭탄이 성경 무관의 철도에서 폭발했고, 이것을 신호로 일본은 성경의 국민당 주둔군과 무기고를 습격했다. 지구전 끝에 중국군은 만주에서 쫓겨났다. 1945년 8월 초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성경을 공격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항복했

고 그 몇 달 뒤 1946년 3월 중국의 국민당 군대가 성경을 점령했다.

● 창춘(長春)시 : 지린성의 성도, 부성급 시 / 인구 약 800만 명(시할구 : 약 550만 명) / 영화 제작과 자동차의 동시에 유명하다.

옛 부여의 수도, 이후 말해와 오나라·금나라·원나라·청나라에 속했으며, 1905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의 만주주 철도와 러시아 소유의 둥청(東清) 철도의 교차점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창춘은 1931년의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괴뢰국으로 설립된 만주국의 수도가 되면서 '신징'(新京, 신경)이라 개칭되었다. 1945년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46년 국민당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1947년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춘 지역의 굶주림으로 인해 1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1951년에 지린 성의 성도가 되었다.

한편 1932년부터(1934년 즉위) 1945년까지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溥儀, 1905~1967)는 일제의 조작에 의해 만주국 황제에 취임한 뒤 진희루(錦熙樓, 현 僞滿洲宮博物院)에서 살았다.

● 지린(吉林)시 : 지린성의 성도 창춘(長春)에 이어 두 번째 도시.

지금시 / 인구 450만 명(시할구 : 200만 명)

* 옛 부여 때의 계림(鶴林)

송화강(松花江) 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인구 중에서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주족이 약 23만 명, 조선족이 약 2만 명 거주하고 있다.

● 예전 조선족 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 지린성의 자치주 / 총 인구 : 약 220만 명 / 중심지는 옌지(延吉 : 현금시, 인구 50만 명 내외, 조선족 약 58%)

8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거주 지역, 자치주 전체 인구 가운데 조선족 인구 비율은 36.7%이며, 조선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둔화(敦化)를 제외한 연변 지역의 조선족 인구 비율은 46.5%이다.

● 투먼(圖們)시 : 인구 약 14만 명(조선족 58%)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남으로 북조선 함경북도 온성군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훈춘(琿春), 서쪽으로는 옌지(延吉), 북쪽으로는 왕청현(汪清縣)과 접해 있다.

● 중국의 미인과 왕소군과 흥노

· 서시(西施) = 침어(沈魚) : 춘추 말기 월(越)의 미인으로 구천(句踐)에 의해 오(吳)왕 부차(夫差)의 애첩이 되어 오나라를 멸망케 했(경국지색)

· 왕소군(王昭君) = 낙안(落雁) : 전한 원제의 후궁으로, 흥노의 선우(왕)의 호한야(呼韓邪 單干)와 결혼하여 아들(寧胡闕氏)을 낳고, 호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선우 복주류약제(復株累若鞮 單于)와 재혼하여 딸들을 낳고 살다가 사방 / 당나라 이태백의 소군원(昭君怨) 중 “昭君拂玉鞍 上馬啼紅顏 今日漢宮人 明朝胡地妾” / 당나라 동방규(東方叫)의 소군원 중 “胡址無花草 春來不似春”……”

· 초선(貂蟬) = 폐월(閉月) : 한나라 왕윤(王允)의 양녀로 동탁과 그의 양자 어포를 이간질하여 동탁을 죽게 한 뒤, 어포와 살았다고 하나 모두 “삼국지연의”에 의해 각색된 하구이다.

· 양귀비(楊貴妃) = 수화(羞花) : 당 현종의 아들 수왕(壽王)의 비(妃)가 되었다가 훗날 현종의 귀비(貴妃)가 됨. 안녹산의 난 때 피신하던 중 군사들에 의해 재상이자 친척인 양국옹이 죽고, 그녀도 독을 뱉어 자결함.

2. 인구·민족 이야기

● 한족 : 12억 5천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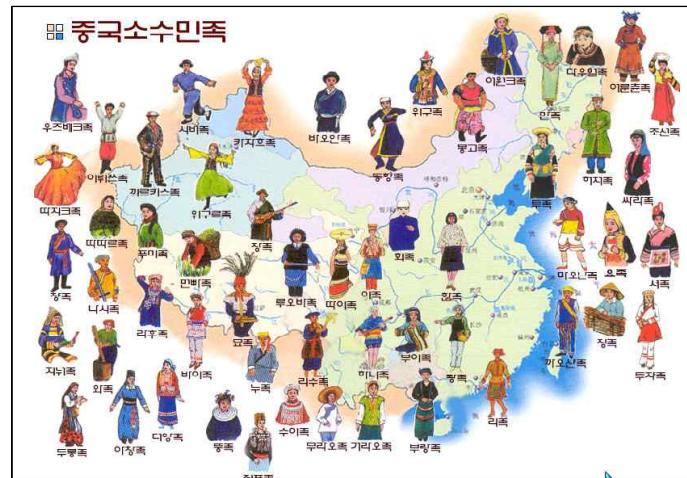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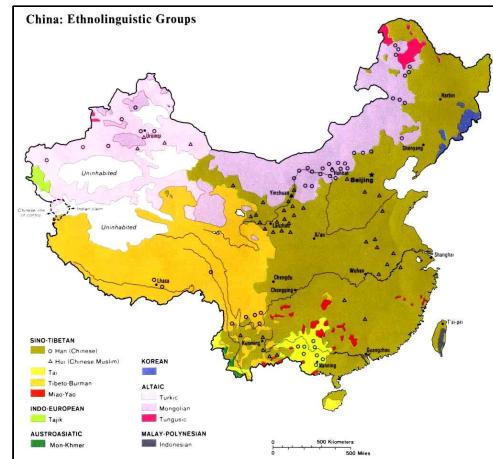
● 소수 민족 : 56개

장족(壯族, 1천 7백만 명), 만주족(1천 1백만 명), 회족(1천만 명), 뮤족(9백만 명), 위그르족(8백 5십만 명), 토가족(8백만 명), 이족(彝族, 7백 8십만 명), 둉고족(6백만 명), 티베트족(藏族, 5백 5십만 명)

● (14대 민족) 조선족(약 200~220만 명) : 동삼성(190만 명) 중 연변 조선

족 자치주에 약 80만 명 거주, 네이닝구(약 2천 명)

● 만주족(滿族) :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를 근거로 거주했던 둉구스계 여진족(숙신·물길·말갈족)의 후신으로, 금나라(1115~1234, 태조는 아골타) 설립. 2대 태종 때인 1125년에 거란족의 요나라 병합 / 1234년 몽골·남송 연합군에게 멸망 / 1586년 누르하치(努爾哈赤, 1559~1626)가 여진의 세 부족을 통합함과 동시에 “만주족”으로 개칭. 1616년 금(金, 즉 후금) 건국. 1636년 태종 승덕제(홍타이지·皇太極)가 국호를 ‘대청’으로 개칭(1912년 신해혁명으로 멸망) ⇨ 2000년 현재 1천만 여 명, 동북 3성에 7백여 만 명 거주(랴오닝 성에 약 5백만 명 거주)



중국 천주교와 간도 교회

1. 중국 교회사 : 베이징교구를 중심으로

① 베이징 기교와 베이징교구

베이징 지역에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원(元) 나라 때인 13세기 중엽이었다. 그에 앞서 당나라 멸망 후 쇠퇴했던 경교(景教, Nestorianism)는 11세기 아래로 다시 동고(蒙古) 사회에 널리 전파되었다. 한편 천주교회에서는 1264년 세조(世祖, 쿠빌라이)가 베이징(당시의 이름은 上都)으로 칙도한 지 30년 만인 1294년에 교황 니콜라오 4세의 친서를 휴대한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돈데 코르비노(Giovanni de Monte Corvino, 孟高味諾) 신부가 세조를 암현하였다. 이후 코르비노 신부는 성당을 건립하면서 전교에 힘쳤고,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307년 7월 21일에 베이징대교구를 설정함과 동시에 코르비노 신부를 베이징 대주교 겸 동양의 총대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원이 쇠퇴하고 명이 흥기하면서 베이징대교구는 많은 손실을 입은 채 14세기 말에 이르러 폐지되고 말았다.

베이징 교회는 명(1368~1644) 말기에 이르러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전교를 재개하면서 다시 설립되었다. 특히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선교사는 천주교를 전파하면서 천주교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Ricci, 利瑪竇) 신부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지 8년 후 만인 1601년 1월 24일에 베이징에 진출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했으며, 1605년 8월에는 판토하 (Pantoja, 潘迪我) 신부 등과 함께 남당(南堂 : 선무둔친주당, 無罪 없이 양태 되신 성모 친주당)을 축성함으로써 베이징 전교의 노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은 1616년의 남경 박해(南京迫害)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1644년 명이 멸망할 때까지 중국 각처로 전주교를 전파해 나갔다. 한편 1633년에는 스페인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이국함으로써 예수회의 단독 선교가 끝나게 되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의 진출은 선교 단체 사이에서 전교 방침이나 보호권(保護權, padroado)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청(淸)의 임관 이후에는 마침내 의례 논쟁(儀禮論爭, rites controversy)으로 비화되었다. 더욱이 1680년에 아우구스티노회 선교사들이, 1684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전교권을 인정받은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이, 1687년에 프랑스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어 포르투갈은 1576년 마카오를 보호 교구(保護敎區)로 설정한 데 이어 1690년 4월 10일에는 베이징교구와 남경교구를 보호 교구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14세기 말에 베이징대교구가 폐지된 지 300여 년 만에 베이징교구가 부활되었다.

베이징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는 질강(浙江)의 대목으로 있던 이탈리아 프란치스코회의 기에사(Chiosa, 伊大仁) 주교가 1690년에 임명되어 1701년에 베이징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의례 논쟁의 종결을 위해 1715년 3월 19일에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칙서 *Ex illa die*를 반포하여 중국 의례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면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1698년에는 옹정제(雍正帝)가 금교령을 반포하였고, 강희제(康熙帝)는 의례 금지령에 반해 선교사 추방령과 선교 금지령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705년에 신자수 30만 명에 이르던 중국 교회의 교세는 크게 감소하였다.

② 교구 분할과 마해의 연속

베이징교구는 1696년에 산서(山西)와 섬서(陝西) 대목구가 분리된 이래 1831년에 조선(朝鮮) 대목구, 1838년에 요동(遼東) 대목구(1840년에 만주 대

목구로 개칭됨), 1839년에 산동교구(山東敎區)를 분리하는 등 1940년대까지 70개에 이르는 교구와 지목구를 분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56년에는 베이징교구가 북직예(北直隸) 대목구 등 3개의 대목구로 분리되었다. 당시 베이징의 신자수는 약 17,000명이었다. 그리고 1946년 4월 11일의 교령에 의해 중국 교회의 교계 제도가 설정되면서 전국이 20개의 대교구 관구, 79개의 교구로 개편됨과 동시에 베이징 대목구는 베이징 관구를 관할하는 대교구로 승격되었다.

건륭제(乾隆帝, 재임 기간 : 1736~1795), 가경제(嘉慶帝, 재임 기간 : 1796~1820), 도광제(道光帝, 재임 기간 : 1821~1850)도 이어지는 박해 기간 동안 베이징교구장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782년 12월 15일에는 다시 포르투갈 출신의 재속 사제로 프란치스코 제3회 회원인 구베아 (Gouveia, 湯士選 알렉산델) 신부가 베이징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듬해 2월 12일에 인도의 고아에서 주교 성성식을 갖고 1785년 1월 18일 베이징에 부임하여 남당에 거처하였다.

1773년 7월 21일 예수회가 해산되면서 베이징교구는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황청에서는 1783년 12월 7일부터 이전에 예수회가 남당해 오던 선교 사업을 라자로회에서 인수받도록 하였으며, 프랑스 국왕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12월 17일에 프랑스 국왕과 포교령에 의해 중국 선교사로 임명된 라자리스트 토(J. J. Raux, 羅廣祥 혹은 羅旋閣) 신부와 길랭 (Ghislain, 吉德明) 신부, 파리(Paris, 巴戎正) 수사가 1785년 4월 베이징에 도착하여 5월부터 북당에서 거처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북당에는 공정에서 수학자로 활동하던 그라몽(J. J. de Grammont, 梁東材) 신부, 방타봉(de Ventavon) 신부 등 6명의 프랑스 예수회원들과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원으로 궁정 화가였던 판지(J. Panzi, 潘廷璋) 수사 등이 남아 있었다. 그 신부는 북당의 프랑스 선교 단장으로서 흔천감(欽天監) 부감(副監) 일을 맡기도 하였는데, 1801년 11월에 그 신부가 사망한 뒤에는 길랭 신부가 선교 단장을 맡아 1812년까지 중국인 성직자 양성에 노력하였다.

구베아 주교는 1808년 7월 6일 사망하기까지 건륭제의 신임을 얻어 흔천감 감정(監正)과 국자감(國子監)의 산학관장(算學館長)을 역임하였으며, 한편으

로는 베이징 신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그의 사망에 앞서 1804년 12월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라자리스트 수자 사라이바(Souza-Saraiva) 신부가 계승권을 가진 베이징교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는 마카오에 있었는데, 이후 구베아 주교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1805년에 재개된 박해 때문에 베이징에 부임하지 못하고 1818년 1월 6일에 사망하였다. 1811년에도 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때 먼저 서당 선교사들이 마카오로 추방되고 성당은 돌수되었다. 동당 선교사들은 1813년부터 감시를 받게 된 데다가 화재로 인해 성당을 제외한 건물이 전소되었으며, 결국 가경제의 성당 암류와 파괴로 선교사들이 모두 남당으로 이전해야만 하였다. 한편 북당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프랑스 라자리스트 라미오(Lamiot, 南彌德) 신부가 1819년에 마카오로 추방되면서 포르투갈 라자리스트 세라(Serra, 高守謙) 신부가 대신 북당을 관리하게 되었다.

수자 사라이바 주교가 사망한 뒤 베이징교구는 남당에 있던 포르투갈 라자리스트회의 리베이도 뉴(Ribeiro Nunes) 신부가 총대리의 자격으로 교구를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리베이도 신부가 1826년에 사망하면서 남경교구장인 포르투갈 라자리스트 피레스 페레이라(Pires Pereira) 주교가 1838년까지 베이징교구를 아울러 관할하였다. 피레스 주교는 1806년에 이미 남경교구장에 임명되었으나 박해 때문에 그대로 베이징의 남당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결국 북당은 1826년에 세라 신부가 마카오로 떠나면서 일시 폐쇄되었고, 남당은 1838년 이후 한때 러시아 교회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후 중국 교회의 박해는 1842년 남경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고 문호가 개방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하였고, 1844년의 황포조약(黃浦條約)으로 신앙의 자유가 획득되면서 북당이 재건되었다. 이 무렵 베이징교구의 선교는 라자리스트회의 카스토로 투라(Castro e Moura) 신부 등이 담당하였는데, 특히 그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보호권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후 베이징교구는 1840년 초대 동고 대독구장으로 임명된 라자리스트의 둘리(Obuly) 주교가 1846년부터 관리를 맡게 되었고, 1856년에는 그가 북직에 대독구(즉 베이징 대독구)의 대독을 맡아 1868년까지 활동하였다. 당시 베이징 대독구의 신자 수는 약 24,000명이었다.

③ 공산화 이전의 베이징교구

둘리 주교 사후 베이징의 대독으로는 퀴에리(Guierry) 주교 등 모두 7명의 라자리스트회 주교가 1946년까지 계속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략 1860~1899년 사이에 전개된 반(反)그리스도 운동 즉 구교운동(仇敎運動)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이 구교운동이 절정에 달한 것이 바로 ‘천진 대학살’로 불리는 1870년의 천진교난(天津敎難)이다. 이때 성직자·수도자를 포함한 20명의 서양인과 신자 5만여 명이 살해되었다. 이어 1900년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이 발생하여 주교 5명, 사제 48명, 신자 2만 3천 명, 브로테스탄트인 1만 8천여 명(선교사 188명 포함)이 피살되었고, 북당을 제외한 남당·동당·서당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는데, 남당과 동당은 그 후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었다가 다시 파괴되었다.

이어 중국 사회는 1911년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조가 멸망하고 이듬해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성립되었으며,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과 분열이 계속되었다. 그 동안 미국의 베네딕도회에서는 1925년 베이징에 노학하여 10월 1일에 보인(輔仁) 가톨릭 대학(처음 명칭은 보인 아카데미)을 설립하였으며, 1930년대까지 브란치스코회, 마리아회, 라자리스트회, 마리아의 전교자 브란치스코회 등에서 중등학교 3개와 연구소, 병원 3개소, 양도원·기숙사·인쇄소 등을 설립하였다. 1933년에 베이징시의 신자수는 12,500명이었고, 이듬해 베이징 대독구 전체의 신자수는 263,494명이었다. 그 후 1946년에 베이징 대독구가 대교구로 승격되면서 1년 전에 동양 최초의 주기경에 임명된 신언회(神言會)의 전경신(田耕莘, 노마스) 주기경이 1946년 5월 10일자로 초대 대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전 주기경은 1933년 신언회에 입회하였고, 1939년에 주교로 성성되었으며, 1942년 아래 청도(青島)의 대독을 맡아왔다.

④ 공산화 이후의 베이징교구

중국의 공산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다시 국·공(國共) 분열이 이루어진 1946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1949년 10월 1일 보택동(毛

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에 승리하고 베이징에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면서 완전히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베이징대교구 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 전체가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만 하였다. 1951년 초부터 공산당은 애국 대중 운동이라는 종교 정책 아래 자양(自養)·자전(自傳)·자치(自治)라는 3자 운동(三自運動)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교회를 교황청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에 동조하지 않는 베이징의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되기 시작하였고, 교회 학교와 시설들이 폐쇄되었으며, 1951년 6월 28일에는 교황 대사 리베리(Riberi)가 제보 추방되었다. 아울러 북당도 폐쇄되어 오랫동안 학교와 창고로 이용되었다. 1950년에만 해도 중국을 떠난 선교사수는 2,274명에 달하였다.

공산당의 3자 운동은 교황청이나 서양 제국과의 관계 단절을 바탕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1955년에 이르러 애국회(愛國會) 결성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두렵에는 적어도 100명의 중국인 사제, 50명의 신학생, 30명의 수도자, 약 4,000명의 신자가 수감되어 있었으며, 남아 있는 외국인은 27명(사제 16명, 수녀 11명)에 불과하였다. 이어 1957년에 결성된 관변 조직인 “중국 천주교 애국회”는 토마 교황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이듬해부터는 독자적으로 주교를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0년 뒤에 시작된 문화 혁명(1966~1976)으로 중국 교회는 다시 한 번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사구(四舊, 낡은 사상·문화·풍습·습관) 타파”와 “계급투쟁”的 구호 아래에서 홍위병들에 의해 모든 교회는 폐쇄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성직자들은 추방되거나 살해되었다. 그 결과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게 되면서 종교 활동 또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택동 생존시인 1971년에 와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던 곳은 남당뿐이었는데, 이곳에서의 미사에 참석할 수 있던 사람들은 외교관이나 외국인이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물게 된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부문식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기 시작하였다. 신학교가 개교하였고, 1978년부터는 20~30년씩 옥고를 치른 사제들이 석방되었으며, 애국 교회는 다시 활성화되어 갔다. 이어 1979년 7월 25일에는 애국 교회의 부칠산(傅鐵山) 신부가 베이징의 주교로 선임되어 오랫동안의 공식을 끝우게 된다.

1648~1930년에 솔교하여 1889~1956년 사이에 사복된 120명의 중국 선교사들은 2000년 10월 1일 토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성되었다. 이 중국 성인들은 서양 선교회 소속 33명, 중국인 사제 4명, 평신도 83명 등이다. 현재(2003년 9월 발표) 중국 애국회에는 97개 교구, 73명 주교, 2,600명 사제, 약 6,000개 성당, 500만 명 신자가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는 주교 117명, 사제 약 3,600명, 신자 약 1,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따라서 애국회의 공식 발표 외에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주교가 40여 명, 사제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 랴오닝교구(遼寧교구)와 지린교구(吉林교구)

● 랴오닝교구

1838년 12월 11일 “요동교구”설정 → 1840년 8월 23일 동꼴대독구 분리와 동시에 “만주대독구”로 개칭 → 1898년 5월 10일 북만주대독구가 분리되면서 “남만주대독구”로 개칭 → 1924년 11월 3일 : “북롄대독구”로 개칭 → 1946년 4월 11일 : “강천대교구” 승격

* 1983년 중국 종교국에서 4교구를 “요녕교구”로 통합 : 潞陽대교구 / 撫順교구(1932년 2월 4일 무순지독구 : 메리놀회 → 1940년 2월 13일 무순대독구 : Lane 주교 → 1946년 4월 11일 무순교구) / 热河교구(동동꼴, 제홀, 금주교구) / 齊門교구 통합

● 지린교구

1898년 5월 10일 “북만주대독구”로 분리 설정 → 1924년 12월 3일 “길림대독구”로 개칭 → 1946년 4월 11일 “길림교구”

* 초대 교구장 : P. M. F. Lalouyer, M. E. P. (1850~1923)

● 자무쓰(佳木斯) 독립 포교지(Mission 'Sui Juris', 흑룡강성) ⇒
현재 길림교구에 병합됨

1928년 7월 9일 설정 → 1940년 4월 9일, 자무쓰 지도구
(Prefecture Apostolic of Jiamusi) * 초대 지도구장 : 카푸치노
회(O.F.M. Cap.)의 Adalar Eberharter 신부

3. 간도 천주교와 훈춘

① 간도의 복음 전파(19세기 말)

간도(問島) 지역은 본래 동간도(즉 북간도)와 서간도로 구분되는데, 간도라고 하면 보통 동간도 지역의 훈춘(琿春) · 왕청(汪清) · 연길(延吉) · 화룡(和龍) 네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의해 봉금 지역(封禁地域)으로 정해져 오다가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가 건립된 후 조선 영토가 되었다. 이에 함경도 지방의 농민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이곳으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으나, 이 때문에 조 · 청 사이에 월경(越境) 개간이 문제가 되곤 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 9월 7일, 일제가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問島協約)에 의해 불법적으로 청에 할양되고 말았다.

이곳에는 간도의 사도인 김영열(金英烈, 세례자 요한)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천주교 신앙이 알려지고, 공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열은 1891년 간도의 호천개[湖泉浦]에서 처음 스승 김이기(金以器)로부터 “천주교가 진교(眞教)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후 스승이 동학도로 체포되어 처형된 후 김영열은 1896년 봄 서울로 향해 가던 중 뜻하지 않게 위산(元山)에서 제5대 본당 주임 베르모렐(Vermoral, 張若瑟) 신부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영세 임교하게 되었다.

이후 김영열은 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여러 동료들을 얻게 되었다. 한편 위산 본당은 베르모렐 신부가 충청도 강경(江景) 본당으로 전임되면서, 1897년 5월 23일자로 브레(Bret, 白類斯 루도비코) 신부가 제6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호천개 사람들은 브레 신부로부터 마지막 교리를 마저 배우고, 그해 성신 강립 대축일에는 그중 12명이 영세와 동시에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때 브레 신부는 이 12명이란 숫자가 12사도의 수와 같다 하여 그들

에게 “북관(北關)의 12종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그중 8명만이 즉시 간도로 되돌아갔고 나머지는 원산에 정착하였다.

브레 신부가 회령 지역과 간도를 방문한 것은 12종도가 탄생한 해인 189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다. 이때의 순방에서 그는 간도 일대뿐만 아니라 만주의 길림성 지역까지 방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8년 1월 3일에는 신자들이 구입해 놓은 함경도 회령의 공소 기와집에서 첫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자유현(자내오)이 살고 있었다. 회령에 공소를 마련한 이유는 간도의 신자들이 이곳에 모이기 쉬웠고, 또 간도에는 아직 공소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브레 신부가 첫 방문을 끝낸 1898년 3월 두렵 간도의 신자수는 모두 176명이었고, 그중 161명은 이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당시 간도 지역은 사복 관할 밖에서 중국의 만주교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신자들과 주민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으므로 만주교구의 교구장이던 귀용(Gui Uong) 주교는 제8대 조선교구장 뮤텔(Mutel, 閔德孝) 주교의 요청을 수락하여 조선 선교사들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었고,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도 조선 선교사들에게 어권을 발급해 주었다.

간도의 첫 번째 공소는 1898년 말에 설정된 “부처골(佛洞, 현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 공소”였다. 부처골은 용정(龍井)에서 8리 가량 떨어진 곳으로 1898년 초에 신자들이 이룩한 교우촌이었는데, 1898년 말 브레 신부의 방문으로 공소가 된 이래 신자들에 의해 ‘대교동(大敎洞) 공소’라 불리면서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부처골과 함께 공소로 설정된 곳은 호천개, 싸리밭골, 삼원봉(三元峰, 즉 英岩村) 등이었으나, 이어 화룡현과 연길현 각 처에 공소가 설립됨으로써 간도의 신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신자들의 노력에 의해 1900년 경에는 연길현 용성촌(龍井村)에, 그리고 1903년에는 조양하(朝陽河)에 교우촌이 이루어졌으며, 얼마 안 되어 여기에도 공소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구교우, 즉 초기에 입교한 신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간도 지방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1907년 경에는 훈춘(琿春)과 그 인근인 팔지(八池)에도 교우촌이 형성되고, 신부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09년에는 간도

지역의 신자수가 모두 2,362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넓은 사목 지역에 종지 않은 이후, 일년의 대부분을 공소 순방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본부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브레 신부는 1908년에 이르러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해 10월 24일에 선종하고 말았다.

② 간도 본당의 설립과 면모

- 1909년 5월 1일 영암촌(英岩村) 본당(즉 삼원봉 본당=대립자 본당)과 용정(龍井) 본당(즉 용정하시 본당) 설립
- 1910년 9월 26일 조양하(朝陽河) 본당(즉 팔도구 본당) 설립
 - * 북만주대목구의 초대 대독구장인 파리외방전교회의 라루이예(P.M.F. Lalouyer) 주교가 간도의 재치권을 조선대목구장 뒤셀 주교에게 이양
- 1919년 7월 19일 조양하 본당의 최문식(崔文植, 베드로, 1881~1952) 신부가 바적에게 납치되었다가 다음해 2월에 석방됨
- 1921년 5월 1일 위산 대독구(독일의 성 베네딕도 수도회) 관할 지역이 됨
- 1922년 12월 연길(延吉, 즉 局子街) 본당(훗날의 연길하시 본당) 설립
 - * 연길 본당(즉 연길하시 본당), 팔지(즉 육도포 본당), 훈춘 본당, 부금 본당(의란지목구), 대령동 본당(즉 다조구 본당), 돈화 본당, 가독사 본당(의란지목구) 등 설립
- 1928년 7월 19일 간도 지역이 “연길지목구”(延吉知牧區)로 설정됨(초대 지목구장 : 브레허(白泰오도로) 신부)
 - * 두도구 본당, 옹실라자(즉 명월구=안도 본당), 학마당 본당, 왕청 본당(즉 백초구 본당), 독단강 조선인 본당, 신창 본당, 독단강 중국인 본당, 삼도구 본당, 도문 본당 등 설립
- 1931년 11월 6일 스위스 캄의 올리베따노 수녀회(현 부산 올리베따노 수녀회) 연길 진출, 만주사변(滿洲事變) 발발(일본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들어섬)
- 1937년 중일전쟁

- 1937년 4월 13일 연길지목구가 “연길대목구”로 승격됨과 동시에 브레허 아빠스가 주교로 임명됨
- 1945년 소련 공산군 진주
- 1946년 4월 소련군 철수, 중국 공산당 장악
 - 중국 천주교 교계제도 설정으로, 재치권이 중국 교회로 환원됨
- 5월 천주교회에 대한 청산 시작
 - (침묵의 교회도 전락함)

③ 훈춘과 김대건·최양인 신부

조선 동북쪽 입국로인 경원(慶源)으로 갈 수 있는 국경 도시, 연길에서 130km 떨어져 있으며, 현재 미국 국식을 가지고 있는 연길 본당의 양계도 신부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이곳을 방문하여 신자들을 돌보고 있다.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아 1844년 2월 5일부터 4월까지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고난의 여행을 한 뒤 그 여정을 기록한 <훈춘 여행기>를 남겼다. 이때 그는 3월 8일(음력 1844년·갑진년 1월 20일)에 훈춘을 거쳐 경원으로 들어가 조선 교회의 밀사를 만날 수 있었다.

1846년 1월 말에는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은 페스드르 신부가 최양인 부제와 함께 중국인 안내자 2명을 앞세우고 조선의 동북방 입국도를 탐색하기 위해 소빨가자를 떠나 훈춘으로 갔다. 그들 일행은 17일 만인 2월 중순 훈춘 입구의 국경 마을, 즉 조선에서 10리 떨어진 마을에 도착해서 (음력 1846년·명오년 초에 열리는) 경원 개시(慶原開市)를 기다리면서 열흘간 머물렀다. 그러나 서양인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개시(開市) 전날 만주 관헌에 체포된 그들 일행은 이를 동안 감옥에 갇혀 가벼운 두초를 밟은 뒤에 석방되었다.

● 경원개시 : 1646년(인조 24년)에 공인된 조·청(朝淸) 사이의 국제 무역 시장. 명자호란 뒤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조공 무역(朝貢貿易)이 성행하면서 조·청 국경 지방에도 호시(互市)가 생겨났다. 이 중에서 1638년에 재개된 회령개시(會寧開市)와 1646년에 시작된 경원 개시는 ‘북관개시’(北關開

市)로 통칭되었으나, 처음에는 공무역만 이루어지다가 후에는 사무역이 더욱 성행하였다. 회령개시는 1년에 한 번, 경원개시는 2년에 한 번 열렸는데, 이 북관 개시가 동시에 열리는 것을 가리켜 '쌍개시'라고 하였다. "통문관지" (通文館志)에 따르면, 경원개시는 을(乙) · 정(丁) · 기(己) · 신(辛) · 계(癸)년에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여순감옥과 안중근 의사

1. 여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수감되어 있었고, 당시 신채호 (1880~1936) 선생이 6년여의 옥살이(1929. 5~1936. 2) 끝에 수국한 장소, 1894년의 청일전쟁 후 일본이 요동을 침병하자, 러시아가 3국간신(三國干添)을 통해 일본을 요동에서 촉출하고 요동 지방을 조차한 뒤 1902년에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1904년의 러일전쟁 이후 여순을 점령한 일본군이 확대 시공하여 1907년에 완공함.

2. 안중근 의사 연보

1879년 7월 16일(양력 9월 2일) :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과 조조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배와 가슴에 북두칠성 모양의 7개 흑점이 있어 아명이 應七)

1885년(7세) : 안 의사 일가 신천군 청계동 이주
안중근 : 집안의 학통을 이어, 청계동 한문학교 수학 → 동시에 상무 정신(무예 및 병법) 및 개화 사상 학양

1891년(16세) : 안 의사, 김아려와 결혼
(2남 1녀 : 딸 현생, 아들 분노, 후생)

1895년 여름 : 부친 안태훈이 동학 농민군 노벨시의 군량미 문제로 추궁을 받자 명동 대성당으로 피신

1896년 10월 : 안태훈이 선교사들로부터 천주교 서식을 얻고, 교리에 밝은 이종래(바오로)와 함께 청계동으로 귀환

1897년 1월 11일 : 안악의 마령 분당(안악군 文山面)에 있던 빌헬름(Joseph Wilhelm, 洪錫九) 신부가 청계동 방문
안태훈(베드로), 안중근(노마스, 18세), 안태경(가밀로) 등 33명 세례

1897년 12월 : 안중근, 청계동 방문 후 해주로 가는 제8대 조선 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아우구스티노) 주교 안내

1898년 4월 하순 : 빌렘 신부, 본당을 마령에서 대화동으로,
다시 청계동으로 이전
안 의사는 이후 빌렘 신부의 복사로 전교 활동
1900년경 : 안 의사, 빌렘 신부와 함께 뷔텔 주교를 찾아가 대학
설립을 건의(프랑스어 공부 중단)
1906년 3월 : 상해에서 트작(Le Gac, 郭元良) 신부를 만나고 귀국
한 뒤 남포(즉 鎮南浦)로 이주 → 교육 사업, 칙산 운동, 결사
운동, 國債報償運動
1907년 10월경 : 북간도 망명 후 애국 계동 운동 및 무상 투쟁.
이윤범(李範允) 의병 부대의 참모중장으로 활동
1908년 6월 : 안 의사 3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거느리고 국내 침입
작전

● 안 의사 : 일본군을 피해 도망가는 동안 함께한 2명의 의병에게
대세를 줌
“두 형은 내 말을 믿고 들으시오. 세상 사람이 만일 전지간의 큰 임
금이요 큰 아버지인 전주님을 신봉하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한 것이오.
더구나 오늘 우리들은 죽을 지경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속히 천주
예수의 진리를 믿어 영혼의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소. 옛 글에도 아침
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였소. 형들은 속히 전날의 허물을
회개하고 전주님을 믿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소” 하고는
전주가 마물을 칭조하여 만드신 노리와 지극히 공연되고 지극히 의롭고
선악을 상별하는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救贖하는
도리를 날낱이 귀띔하였더니, 두 사람이 다 들은 뒤에 천주교를
믿겠노라고 하므로, 큰 교회의 규칙대로 代洗를 주고 예를 마쳤다(“안
응칠 역사”, 167쪽.)

1909년(31세) 2월 7일경(양력 3월 5일경) : 단지 동맹을 통해
'동의단지회' 조직(현 단지 동맹비가 서 있는 러시아 크拉斯

키노시의 주카노쓰 마을 인구에 있던 '연주 하리' 마을)
1909년 3월 21일 : 하얼빈 외거 결의. 이후 용정·훈춘 등지에서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
1909년 10월 21일 아침 : 연주 하리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안중근·우덕순이 블라디보스톡의 기차역을 떠나
수아부허를 거쳐 하얼빈으로 향발(통역자 유동하 등행).
1909년 10월 22일 : 하얼빈 도착
1909년 10월 25일 : 안 의사, 거사의 한 지점인 채가구를 우덕순,
조도선 등에게 맡기고, 자신은 또 다른 의거지 하얼빈으로
돌아온(반환에 심자를 표시함)
1909년 10월 26일(음력 9월 13일) : 안 의사, 조선 통감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응징(7연발 브라우닝 권총에 약실
포함하여 모두 8발을 장전, 7발 사격에 3발 명중), 수행원
하얼빈 천상 총영사, 삼 비서관, 전종 만칠 이사 등 부상
러시아 헌병에 의해 체포된 후 '코레아 우라'(대학민국 단체)
를 3번 외침 ⇒ 오후 8~9시경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짐

● 안중근 노마스 : 거사 후 肖像이 있는 벽을 향해 심자 성호를 그으며 “조국
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등박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에게 감사하면서 심자가를
긋고 대학마세를 불렀다.”

1909년 10월 30일 : 안 의사, 관련 연루자와 함께 일제의 여순 광동
도독부로 이송 시작
1909년 11월 3일 : 일본과 러시아 헌병의 감시 아래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정대호, 김성옥 등과 함께 여순구 감옥 수감
1909년 12월 중순 : 동생 정근, 공근이 여순 감옥으로 면회. 자서전
<안응칠 역사> 집필 시작
1910년 1~2월 : 여순 광동도독부 고등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판

1910년 2월 14일 : 제6회 공판(최종 판결) 개정, '안중근 사형' 선고

1910년 3월 8일 : 빌렘 신부, 어순 감옥으로 안 의사 방문

(고해성사, 성체성사)

1910년 3월 26일(음력 2월 16일) : 교수형으로 수국

3) 정하상의 "상재상서"와 안 진사의 천주교 귀의

(안)태호 진사는 서울에 머무를 때에 진우 이 창봉(즉 이종래 바오로)의 소개로 "상재상서"라는 소책자를 입수하여 翻讀하였다. 이 책자는 조선의 석학 茶山 丁若鏞의 친조카인 (정)하상이 1839년 천주교도 대박해(즉 기해박해) 당시 옥중에서 집필하여 여러 신료와 재상에게 보낸 일종의 진정문과 같은 기록이다. 하상은 경기도 양군 출신으로 누대 병유의 후손이다. 그의 부친 若鍾, 속부 약용, 계부 若鎧이 모두 천주교를 독실히 신봉하였다.

그 책을 는지가 아주 뛰어나고 문장 또한 힘이 있고 위숙하여 한번 읽으면 그대로 따를 만한 박력을 함축한 일대의 명작이다.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는 동안에 호기적 흥미가 한걸음 진보하여 신앙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天主實義", "七免", "聖教受難事蹟" 등의 서적을 얻어 읽으면서 교회 연구에 정진하게 되었다(안중근의 敦義學校 문하생인 緯涯 李全의 "안중근 혈투기")

<"안중근역사" · "상재상서" · "주교요지"의 교리 내용 비교>

"역사"	"상재상서" 본문	"주교요지"
魂說 (生魂, 聲魂, 靈魂)	셋째 부분	상편 4조목, 16조목, 29 ~ 30조목
천주의 속 성	無始無終	상편 8조목
	三位一體	상편 14조목
	천주의 권 능	상편 11 ~ 12조목, 28조목, 32조목, 하편 7조목
大君大父論(충효론)	셋째, 다섯째 부분	상편 16조목, 25조목
사후 심판과 賞善罰惡	셋째 부분	상편 28 ~ 29조목, 32조목
천당 지옥과 영혼 불멸	넷째 부분	상편 29조목, 31 ~ 32조목
천주의 존재 증명(창조와 주재)	첫째 부분	상편 2 ~ 5조목
降生救贖과 부활(신약 성서)		하편 3 ~ 4조목

최양업 신부 연보

1. 신학생 선발과 마카오 유학

- 1821년 3월 1일 : 최양업, 충청도 홍주 다래골의 새터(현 충남 靑陽郡 化城面 農岩里)에서 성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과 이성례(李聖禮, 마리아)의 6형제 중 장남으로 출생.
- 1836년 2월 6일 : 부평 첨교리 교우촌에서 모방(Maubant, 羅伯多祿) 신부에게 신학생으로 간택되어 서울 (금부) 후동의 신부택에 도착. 과학수업 시작.
 - * 부친 최경환은 이후 수리산으로 이주한 뒤 그곳 회장으로 임명됨
 - * 최방제 3월 14일, 김대건 7월 11일 후동 신부택에 도착
- 12월 2일 :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모방 신부가 바라보는 가운데 신자가 앞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순명과 복종 서약을 함.
- 12월 3일 : 성 정하상(丁夏祥, 바오노), 성 조신칠(趙信喆, 가롤로), 이광렬(李光烈, 요한) 등의 인도를 받아 중국으로 출발.
- 12월 28일 : 의주성 · 암록강 · 구련성을 거쳐 봉황성 범문(邊門 즉 櫺門, 현 요녕성 봉성시 범문진) 도착. 조선 입국차 요동에 머무르고 있던 샤스탕(Chastant, 鄭牙各伯) 신부를 만남.
- 1837년 6월 7일 : 중국 대륙(침양 → 마가자 → 서만자)을 남하하여 마카오에 도착. 파리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 안의 “조선교구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 시작
- 11월 27일 : 동료 신학생 최방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위열명으로 사망.
- 1838년 9월 14일 : 페레올(Ferréol, 高 요한) 신부, 계승권을 가진 조선 대목구의 보좌 주교로 임명됨(1913년 초에 가서야 교황의 칙서를 전달받음).

2. 마닐라 피신과 마카오 귀환

- 1839년 4월 6일 : 마카오의 소요로 인해 부대표 리브와 신부, 교장 칼레리 신부, 데플레슈 신부 등과 함께 마카오를 출발하여 마닐라로 피신.
- 5월 3일 : 노비니교회의 롤롬베이(Lolombey) 농장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리브와, 데플레슈 신부 등에게 수학(11월 26일까지 약 6개월 만 동안 생활함).

- 조신칠(가롤로)과 유진길(아우구스티노)이 북경에서 보내온 1839년 3월 10일자(혹은 3월 11일자) 서한 1통을 받음
- 부친 최경환에게 쓴 서한이 조신칠을 통해 조선에 전달됨
- 11월 말 : 마닐라에서 마카오로 귀환.
- 9월 12일 : 부친 최경환(프란치스코), 기해박해(己亥迫害)로 서울 포청에서 옥사 순교.
- 1840년 1월 8일 : 마스트르(Maître, 李) 신부가 마카오에 도착. 신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맡음.
- 1월 31일 : 모친 이성례(마리아), 서울 당고개에서 순교

3. 마카오 출발과 소팔가자 도착

- 1842년 7월 17일 : 브뤼니에르(de la Brunière) 신부와 최양업, 신학생 린(范) 요한과 함께 프랑스 군함 파보리트호를 타고 마카오 출발. 9월 11일 상해 도착
- 10월 22일 : 요동 만도의 담단위 태장하(太莊河, 현 요녕성 장하시) 해안에 도착(1차 탐색 여행).
 - 안내인 밤 요한이 찾아서 보내온 백가점(白家店, 현 장하시 蓉花山鎮의 註溝 인근 마을) 교우촌의 회장 두(杜) 요셉과 함께 세관에 감
- 10월 26일 : 백가점 교우촌에 도착. 두 요셉 회장 집에서 유숙.
- 11월 : 브뤼니에르 신부와 함께 양관(陽關)을 거쳐 페레올 주교가 있던 장춘 북쪽의 팔가자(八家子) 교우촌의 소팔가자 성당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
- 1843년 12월 31일 : 개주 양관에서 있은 제3대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의 성설식에 참석.
- 1844년 1월 14일 : 마스트르 신부, 김대건과 함께 팔가자로 귀환하여 신학 공부 계속.
- * 김대건 : 훈춘을 거쳐 경위(慶源)으로 가서 3월 8일에 조선 교우를 만난

뒤 귀환

- 12월 10일경 : 최양업과 김대건, 부제로 서풀됨.

4. 사제 서풀과 귀국 후의 선종

- 1846년 1월 말 : 최양업 부제,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조선 입국을 위해 만주의 훈춘(琿春)으로 갑(2차 탐색 여행).

- 2월 중순 : 훈춘의 동강자(주성) 마을에서 경원 개시(慶原開市)를 기다리던 중, 만주 관헌에 체포되었으나 3일 만에 석방됨.
 -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빨가자로 귀환하여 신학생들을 지도함.

- 12월 말 :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범문(책문)을 통해 조선에 입국하려다 실패함(3차 탐색 여행).

병오박해(丙午迫害)와 김대건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들음.

- 1847년 초 :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이전된 홍콩에 도착.

- 1839년과 1846년의 박해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

- 7월 28일 :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라피에르(Lapierre) 함장이 이끄는 구한글로와르(La Gloire) 호와 빅토리외즈(Victorieuse) 호를 타고 홍콩을 출발(4차 탐색 여행, 1차 해로 탐색).

- 8월 10일 : 조선 고군산도(古群山島) 부근에서 난파하여 섬에 상륙. 조선에 남고자 하였으나 라피에르 함장이 이를 거절함.

- 8월 26일 : 상해 도착. 이후 상해 서가회(徐家匯) 위에 있던 예수회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

- 1849년 4월 15일 : 사백주일(鉢白主日), 장가루 성당에서 나폴리 성가회회원이자 강남대목구장인 마레스카(Maresca, 趙方濟)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풀됨.

- 5월 :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중국 배를 타고 백령도(白翎島)를 통한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상해로 귀환(5차 탐색 여행, 2차 해로 탐색).

- 1849년 5월 : 상해를 출발하여 요동으로 갑. 요동의 차구(岔溝) 성당(현 장하시 용화산진)에서 사목 실습 시작

- 6월 21일 : 차구 성당에서 만주의 부주교인 베르뇌(Berneux, 張敬一) 신부 앞에서 <중국 의례(儀禮) 의식>에 대한 선서를 한 뒤 보좌 신부로 성직 수행.

- 11월 3일 : 요동으로 온 매스트르 신부를 만남.

- 12월 말 :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상황성 면문으로 가서 조선 입국을 시도(6차 탐색 여행).
 - 매스트르 신부와 헤어져 단신으로 입국에 성공(13년 만에 귀국).

- 1850년~1851년 : 전국의 다섯 개 도의 교우촌 순방

- 1852년 8월 : 매스트르 신부, 고군산도를 거쳐 입국에 성공.

- 1853년 여름~1854년 3월 : 진전 배티의 조선교구 신학교 교사 겸 지도 신부로 활동

- 1854년 3월 이후 : 전국의 교우촌 순방

- 1860년 : 죽림(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교우촌에서 경신박해(庚申迫害)를 당해 숨어 지낸다.

- 1861년 6월 15일 : 베르뇌 주교에게 보고자 상경 중 충북 진천 공소에서 장티푸스와 과로로 인해 주르티에 신부로부터 종무 성사를 받고 선종.

- 11월 초 : 충북 진천 공소에 가매장된 시신이 배론[舟論]으로 옮겨져 안장된다.

차구와 백가점 교우촌

1. 최양업 신부의 첫 사목지 차구·백가점

1838년 초대 요동대목구장에 임명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베를(E. J. F. Verrolles, 方若望 요한 프란치스코) 주교는 1840년에 '양관(陽關) 성당'(주보: 성 후베르토, 현 요녕성 개주시 나전촌·羅甸村)을 건립한 뒤, 그 남쪽에 위치한 차구(Tcha Kou) 교우촌, 즉 지금의 용화산진 교우촌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840년 당시 이곳에는 110명 가량의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베를 주교는 얼마 뒤 이곳 차구에 성당을 건립하고는 도마에 있는 '눈의 성모 성당'(聖母雪之殿, Notre Dame des Neiges)의 이름을 빌려 이 성당의 주보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이 성당은 아름답고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었던 대다가 차구 주변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눈이 오면 사방이 눈으로 덮여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구 남쪽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계관산(鶴冠山)이 솟아 있는데, 이러한 차구 성당의 위치에 대해 제6대 조선교구장 리델(F. Ridel, 朴福明) 주교도 뜻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성모설지전 성당은 북쪽으로는 ‘엉광의 산’(薔花山을 말하는 듯), 남쪽으로는 작은 시내에서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계관산’ 사이에 있고, 이 작은 시내(즉 東岱溝)는 지금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곳 차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1842년 10월 22일 요동의 태상하(太壯河)에 상륙한 지 4일 뒤인 26일에는 차구 이웃(東岱溝 시내 건너편) 백가점(白家店) 교우촌의 두(杜) 요셉 회상 백에 머물다가 소팔가자로 올라갔었다. 아마도 당시에는 차구에 성모설지전 성당이 건립되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 베를(Emmanuel J. F. Verrolles, 1805~1878) : Verrolles로도 표기한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로, 1831년 중국에 건너와 사천 교구에서 활동하였으며, 1838년에 만주(滿洲) 대목구(당시에는 요동 대목구)가 북경교구에서 분리 설립되면서 그 초대 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1848년에 일어난 박해로 잠시 프랑스로 귀국했다가 돌아와 활동하다가 1878년 요동 땅에서 사방하여 개주 북쪽의 잉초(營口, 만주교구의 주교좌 성당이 있던 곳임)에서 사망했다.

● 김대건 신학생의 기록에 나오는 ‘백가점’ --- “바다에서 (북쪽으로) 60리가량 떨어져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신자수는 약 200명 가량.”

최양업 신부는 1849년 4월 15일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는 고국 조선에서 가까운 요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해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차구 성당에 있는 베르노 신부 아래서 사목 실습을 하다가 1849년 6월 21일 베르노 신부 앞에서 ‘중국 의례(儀禮)’에 대해 규정한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금지령 *Ex illa die*(1715년 3월 19일)와 교황 베네딕도 14세의 척서 *Ex quo singulari*(1742년 7월 11일)를 준수할 것을 선서한 뒤 보좌 신부로 사목을 시작하였다. 중국 땅에서 중국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한 첫 번째 조선인 성직자가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베르노 신부는 1848년 이전까지 양관과 사령(沙嶺)을 중심으로 사목했으며, 1849년 초에는 요양(遼陽)에 들렀다가 차구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다. 그 동안 양관을 주요 선교 거점으로 삼았던 베르노 신부가 1849년에 이르러 자신의 선교 거점을 차구로 이전한 이유는 1848년에 양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즉, 1848년 3월 4일 만주를 습방하던 중 양관에 도착하여 그곳 사제관에서 머물던 베를 주교가 비신자로부터 폭격을 받은 것이다. 이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베를 주교는 다음해 4월 상해 주재 프랑스 총영사 둉티니(Montigny)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조약(1844년의 황포조약)을 위반하고 비신자들이 양관 성당을 공격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베르노 신부는 양관 성당으로 가지 못하고 차구로 부임하였으며, 그 결과 최양업 신부가 차구에서 사목하게 된 것으로

로 보인다.

최양업 신부가 1849년 말 조선으로 귀국한 뒤에도 베르뇌 신부는 차구에 거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854년 말 조선교구장으로서 주교 서품식을 가진 뒤 조선 입국을 위해 1855년 9월 요동을 떠나게 된다. 그 후 만주교구장 베를 주교는 한때 차구 성당에 주교관을 두고 만주를 순방했는데, 1862년 차구 성당의 신자수는 530명이었다.

2. 조선교구 대표부와 신학교 소재지 차구

차구와 양관 성당은 1866년의 병인박해 이후 다시 한국 천주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요동 땅에서도 이 지역이 조선과 가장 가까웠고, 이로 인해 1867년 이래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차구와 양관 성당에 거주하게 된 때문이다. 우선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어 종곡으로 건너온 파리외방천교회의 리샤르(E. Richard, 蔡), 마르티노(A. Martineau, 南), 그리고 뜻날 제7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는 블랑(J. Blanc, 白丰三) 신부 등은 병인박해 때문에 조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 차구에서 생활하였다. 이어 1866년 10월에 조선을 탈출하여 산동에 도착한 칼레(X. A. Calais, 姜) 신부가 차구로 와서 이들과 합류하였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에 승선하여 조선을 왕래했던 리델 신부도 1868년 말과 1869년 4월 말에는 차구로 와서 조선 입국을 모색하게 되었다.

1868년 12월에 리델 신부는 조선교구의 상상으로서 조선 선교사들과 함께 차구에 모여 제2차 조선교구 성직자 회의(synode)를 개최하였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조선교구의 제1차 성직자 회의는 1857년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이때 베르뇌 주교의 <상주교육시제우서>(張主教輪示諸友書)가 신자들에게 반포되었다. 제2차 성직자 회의에서는 주로 조선 입국과 전교, 전교 후의 사목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결의되었으며, 12월 8일에는 조선 선교사 모두가 이 결의문에 서명하였다.

이어 리델 신부는 1869년 1월 말 혹은 2월 초에 차구 성당을 조선 입국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만주교구장 베를 주교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사목 관할권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베를 주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만주교구의 일부

요 요동 교회의 중심지인 차구 지역의 사목 관할권이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위임되었고, 이때 양측에서는 공동 재산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당시 리델 신부가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제6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후였다(1869년 4월 27일 교구장 임명, 1870년 6월 5일 도마 서품식).

1869년 초에는 이처럼 차구 지역의 사목 관할권 즉 재치권(jurisdiction)이 만주교구에서 조선교구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재산 계약서에서 양측의 공동 소유를 규정한 점에서 볼 때, 이 재치권은 조선 선교사들이 조선에서의 완전한 전교 활동을 획득할 때까지도 한정된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만주 선교사들도 차구 성당과 교회 소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편 리델 신부나 조선 선교사들이 이후에도 자주 양관에서 머물던 사실에서 볼 때, 양관 성당의 사용이나 사목도 이 재치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나 추정된다. 양관 성당의 사목이 조선교구에 위임되었다면, 그 담당자는 잉초(營口)에서 사망한 마르티노(1841~1875) 신부였을 것이다.

이후 리델 신부는 조선 교회의 장상으로서, 또 1870년 이후에는 교구장으로서 모든 활동을 이끌어나갔다. 우선 그는 조선교구의 대표부를 차구에 두었으며, 조선교구 신학교도 이곳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리샤르(1842~1880) 신부를 차구 본당의 주임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대표부 일과 경리를 맡아보도록 하였다. 이곳 신학교에서는 1872년 이래 중국인 배 야고보, 뮤 다미아노 등이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한국인 요셉과 도미니코도 이곳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1876년에 귀국하였다.

그런 다음 리델 주교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자 다시 조선 입국을 시도하여 이 해에 블랑 신부와 드게트(V. Degueute, 崔東鎮) 신부를 조선에 임명시켰고, 다음해 9월 20일에는 그 자신이 두세(C. Doucet, 丁加彌) 신부 및 로베르(A. P. Robert, 金保祿) 신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다. 리델 주교는 이후 1878년 1월 28일에 제보되어 포도청에 갇혀 있다가 6월 24일 의주에서 중국으로 추방되었으며, 다시 차구로 돌아가 조선 선교사들을 위한 "한불자전"과 "한어문전"의 편찬에 노력하였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처럼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리샤르 신부는 차구의 사목을 맡고 있었으므로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다

가 1880년 9월 28일 장티주스로 사망하여 차구 성당 앞의 언덕에 안장되었다. 이때부터 리델 주교는 차구의 대표부를 일본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1881년에는 마침내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대표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코스트(E. Coste, 高宜善) 신부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가사키에서 병을 앓아 다음해 프랑스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881년 고향 만느에서 선종). 조선교구의 대표부가 나가사키로 이전됨과 동시에 조선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요동에서의 재치권도 자연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의주·구련성·변분·소팔가자성당

1. 의주·구련성(현 단동시 九連城鎮)

조선의 여행 사신 일행이 암록강을 건너 봉황성 벽문으로 가기 전에 노숙하던 옛 성터 자리를 말하며, 지금은 그 성의 이름만이 마을 이름으로 남아 전한다. 사신 일행은 의주에 도착한 뒤 노강장(渡江狀: 정관 이하 인원·마 빌·세례·路費·기타 징재물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을 올리고, 이곳 통 군정(統軍亭)이나 구룡정(九龍亭) 언덕에서 의주 나윤과 작별 행사를 가진 뒤 도강을 시작하였다. 그 사이에 의주성 밖 암록강변에 임시로 설치된 세관에서는 아주 엄격한 짐고가 이루어진다.

의주 앞 암록강 중앙에는 검동도(黔同島)가 있는데, 이 섬은 태조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의 상류, 어척도의 하류로, 〈내동여지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갈라지는 세 개의 암록강 줄기를 구룡연(九龍淵, 암록강 본류), 중강(中江, 검동도 서쪽), 삼강(三江, 즉 愛喇河)이라고 불렀다. 이곳의 강폭이 좁은 탓에 사신 일행은 대부분 이곳을 넘어 구련성으로 가게 마련이다. 구련성에서 봉황성 벽문까지 이르는 120~130리 길은 무인지대였다.

1789년 조선 최초의 밀사 유휴일(尹有一, 바오토)이 상인으로 면장하고 암록강을 건너 뒤 수많은 교회 밀사들이 이곳을 왕래했고, 주문도(야고보) 신부도 1794년 12월 24일 이곳을 거쳐 조선에 잠입하였다. 그 후 1842년 밀과 1845년 초에는 김대건 신부가 구련성을 통하여 의주로 입국한 적이 있으며, 최양업 부제도 1846년 말에 매스터드 신부와 함께 이곳을 통해 조선으로 귀국 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최양업 신부는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인 1849년 12월 하순, 북경으로 향하는 연행사 일행이 암록강을 건너는 시기를 놓고 교회 밀사들의 안내로 마침내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때 그는 감시의 눈을 피해 밀사들과 함께 한밤 중에 일어붙은 암록강을 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다음 의주성문 아래의 수구문(水口門) 혹은 의주성을 남쪽으로 우회하여 성밖의 민가에 머물었을 것이다. 1836년 밀에 입국한 제2대 교구장 엥베르(L. Imbert, 范) 주교도 비밀리에 의주성을 우회한 것으로 나온다.

- 호산장성(虎山長城) : 고려성 동쪽 애라하(愛喇河, 즉 三江) 너머에 있는 압록강변의 성. 고구려의 박작성(泊灼城)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 성을 만리장성의 동쪽 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 고려성 : 금(金)나라 때 간로(幹魯)가 이곳에 9성(城)을 쌓고 고려와 싸움을 벌였으며, 명·청 때는 조선과의 통상 요지로서 양국의 사절이 왕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 중강개시 : 압록강 중강(즉 김동도 아래의 蘭子島)에서 열리던 공무역. 1593년 임진왜란의 균량미 조달을 위해 시작됨. 이후 치폐를 거듭하다가 1646년 청의 요구로 재개되었으나, 이후 공무역보다는 사무역(즉 중강 후시)이 성행하다가 책문후시가 발전하면서 1700년에 혁파됨.

2. 범문·봉황성

만주에서 흥기한 청이 동이(東夷, 조선 포함)의 침입을 방비하고자 만주 북쪽에서 요동의 남쪽 해안까지 장책(長柵)을 쌓고, 장책의 각 요소에 설치했던 관문(關門)이 바로 범문이다. 본래 2천여 리에 모두 72개소의 장책과 6개의 범문이 설치되었는데, 그 중에서 북경으로 가는 조선의 여행사로에 있던 것이 바로 봉황성 범문(현 단동시 봉성시 邊門鎮)이었다. 이 봉황문을 청에서는 범문이라 하였고, 조선에서는 책문(柵門) 또는 고려문(高麗門), 현지인은 가자문(架子門)이라 불렀으며, 조선에서는 의주 성문을 따로 범문이라고도 불렀다.

봉황성 범문은 청의 입관(入關) 이전인 1636년(崇德 원년)에 봉황성 동쪽 5리 지점에 개설되었고, 압록강에서는 130리 떨어져 있었다. 압록강과 범문 사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구탈(區脫, 즉 범경의 황무지)이었다. 또 범문은 봉황산 끝자락과 남쪽 해변 봉우리의 10여 리 중간 지점에 설치된 책(柵)으로 설치되었는데, ‘책’이란 것은 한 길 반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를 엮어서 말이나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 그 후 성조 강희제 때인 17세기 말에 이르러 봉황성 내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청에서는 이곳의 독축과 농경지를 확대할 요량으로 범문을 더 남쪽으로 이설함으로써

조선 의주와의 거리가 120리로 좁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까지 범문 안의 인가는 30~40호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대부분이 시사(市肆)였다.

조선에서 청에 보내는 사행위들은 언제나 이 범문을 통과해야만 하였다. 이 때 사신 일행이 봉황성장(鳳凰城長)에게 도착을 통보하면 심양 낭사(瀋陽郎使)가 약간의 통과세를 받았을 뿐 심하게 검색하지 않았으며, 회화시에는 미리 뇌물을 주고 한두 종류의 빅물(卜物)만을 보여주면 되었다. 봉황성장은 오히려 고거(雇車)와 장시(場市)에서의 징세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었으므로 조선 상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였다.

당시 이곳에서 행해진 장시는 공무역인 개시(開市)가 아니라 주로 밀무역인 후시(後市)였다. 특히 범문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조선에서는 책문후시(柵門後市 : 1660년 시작 → 1787년 폐쇄 → 1795년 재개)라 불렀는데, 이것은 17세기 중반부터 사신의 왕래를 계기로 범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범문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북경 교회와의 연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훗날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의 밀사를 만난 곳도 바로 범문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신 행렬에 들어가거나 장시가 열리는 기회를 이용해야만 하였다. 이에 천주교회의 밀사들은 어렵게 사신의 마차나 장사꾼 자리를 얻어서, 그리고 훗날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장시가 열리는 틈을 타서 범문을 통과하였다.

● 현 범문진 : 범문진은 봉성시 남쪽 14km 지점에 있으며, 옛 책문 후시 자리는 지금의 범문진 시장 자리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범문진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 “邊門鎮”이란 표석은 범문진에서 봉성시 쪽(즉 북쪽)으로 가는 고개를 넘어 2km쯤 떨어져 있는 철도 지선의 건널목 위쪽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북동쪽으로 봉황산 자락이 잘 보인다. 또 최근에는 단동에서 봉성시에 이르는 국도를 포장하면서 범문 마을 남쪽의 “범문교”를 새로 가설하였다.

1836년 말에는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토마스), 김대건(안드레아), 최방제(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등이 정하상·조신철(趙信喆, 가톨로)·이광렬(李光烈, 요한) 등의 안내를 받아 범문에서 샤스탕(Chastan, 鄭) 신부를 만나 뒤 마카오로 갔다. 그 중에서 김대건은 1842년 말에 범문에서 밀사 김(金) 프

란치스코를 만난 뒤 외주를 거쳐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고, 1845년 초에는 부제로서 범문에서 교회 밀사를 만나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다.

1846년 말, 매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는 범문으로 가서 교회 밀사들을 만나 조선 이국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그 해에 일어난 병오박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홍공으로 건너갔다. 이후 최양업 신부는 1849년 4월 15일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요동 차구로 건너와서 사목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말에는 페레올 주교의 병에 따라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다시 범문으로 갔으며, 이번에는 조선 교회의 밀사들과 함께 암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밖면에 매스트르 신부는 이번에도 조선 땅을 밟을 수 없었다.

3. 팔가자와 소팔가자 성당

지린성의 창춘(長春)에서 북서쪽으로 약 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옛 교우촌(현 창춘시 合隆鎮 서쪽 20여 리의 八家子村). 본래 서쪽의 대팔가자와 동쪽의 소팔가자 교우촌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팔가자 즉 팔가자촌만이 교우촌이자 본당으로 남아 있다.

북경대독구 관할 지역이었다가 1838년에 요동대독구(1840년 만주대독구로 개칭됨)가 분리 설정되면서 새 대독구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 이때 초대 요동 교구장으로 임명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베를(E. J. F. Verrolles, 方若望) 주교는 이후 소팔가자 일대의 광대한 농지를 매입한 뒤 성당을 건립하였다. 이 성당은 1900년 의화단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현재의 성당은 1908년에 재건되었으나, 1947~1980년에는 사제가 상주하지 않다가 1980년에 비로소 중국인 신부가 부임하게 된다.

최양업 신부는 1842년 11월부터 1846년 12월까지 머무르면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고, 그 사이에 훈춘과 경위를 통한 조선의 동북방 입국도를 탐색했으나, 입국로 탐색에 실패하고 돌아온 1846년 3월 초부터 12월까지는 소팔가자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에 앞서 김대건 신부는 이곳 교우촌에서 1843년 4월부터 1844년 말까지 머물렀다. 그 동안에 이들은 1844년 12월 10일경 함께 소팔가자 성당에서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J. Ferreol, 高요한) 주교

로부터 부제로 서품되었으나,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의 일이다. 조선 선교사 매스트르(Maistre, 李) 신부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에게 신학을 가르치며 생활하였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입국과 순교

1.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

1835년 10월 20일 초대 조선대독구장 브뤼기에르(B. Bruguière, 蘇 바르톨로메오 : 1792~1835년) 주교가 마찌아즈(馬柴子) 교우촌에서 선종한 뒤 모방(P. Maubant, 羅 베드토) 신부는 길을 재촉하여 국경으로 갔고, 그곳에서 조선의 밀사들을 만나 1836년 1월 13일(음력 1835년 11월 25일) 마침내 조선에 입국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첫 번째 프랑스 선교사가 된 것이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선종 전에 조선대독구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의 혜안과 선견지명은 훗날 큰 효력을 발휘하였다.

첫째, 1834년 9월 20일자로 포교성성에 서한을 보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라오동 지역을 베이징교구에서 분리하여 조선대독구에 예속시키거나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은 1838년 '랴오동 대독구'(1840년 단주 대독구로 개칭)로 실상되고, 파리외방전교회의 베를 주교가 대독구장에 임명되었다.

둘째, 프르투갈 선교사들의 망해를 막지 않고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일본을 파리외방전교회에 주전하였고, 선교회 본부에서는 포교성성에 류우쿠(璽球) 지역의 사목을 위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그레고리오 16세는 1836년 4월 26일 류우쿠의 사목을 조선대독구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셋째, 브뤼기에르 주교는 산서성 타이위안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시완쓰에 도착한 뒤 쓰촨성의 모팡(현 사천성 雅安市 寶興縣) 신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던 성 앵베르(L. Lambert, 范世亨) 신부를 자신의 후계자로 포교성성과 파리외방전교회에 거두 추천하였다. 그 결과 앵베르 신부는 1836년 4월 26일 계승권을 가진 조선대독구의 부주교로 임명되고, 1837년 5월 14일 주교 서품식을 갖고 제2대 조선대독구장이 되었다.

넷째, 브뤼기에르 주교는 시완쓰를 출발하기 전에 조선 선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모방 신부에게 위임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

하면서 포교성성 주기경 회의에서 불였던 단서 조항들, 즉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에 입국한 이후 조선 교회가 비로소 독립된 대독구로 설정된다는 조항, 브뤼기에르 주교의 조선 계류가 완전히 보상될 때 비로소 조선 교회가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된다는 조항들이 유효해지면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사목권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조선에 입국한 모방 신부는 조선어를 배우면서 브뤼기에르 주교에게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성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하상(바오노)·유진길(아우구스티노) 등 지도층 신자들이 선발해 놓은 최양업(노마스), 최방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건(안드레아) 소년의 신앙과 신앙을 살피본 다음 이들을 신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서울로 이들을 불러 올려 라틴어를 가르친 후 1836년 12월 2일 서약을 맺고 이튿날 마카오로 출발도록 하였다.

12월 3일 최양업·최방제·김대건 신학생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망제 신부와 밀사 정하상·조신칠·이광렬 등과 함께 국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1836년 12월 28일 중국 국경 지대에서 샤스탕(J. Chastan, 鄭 야고보) 성인 신부를 만난 뒤 마찌아즈 교우촌과 시완쓰 신학교를 거쳐 마카오로 향하였고, 샤스탕 신부는 그들과 헤어져 1836년 12월 31일(음력 1836년 11월 24일)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제2대 조선대독구장 앵베르 주교도 그 뒤를 이어 1837년 12월 18일(음력 11월 21일) 조선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오래 가지 않았다. 1839년의 기해박해(己亥迫害)로 인해 9월 21일(음 8월 14일) 군문효수의 판결을 받고 새남터 형장에서 순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박해로 정하상 등 지도층 신자들은 물론 최양업 신학생의 부친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 성인, 김대건 신학생의 부친 김제주(金濟俊, 이냐시오) 성인도 모두 순교하게 된다. 최양업과 김대건 신학생이 이 박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 여가 흐른 뒤였다.

2. 앵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 연보

○ 앵베르 주교 ○

- 1796년 액상프로방스 까브리에(Cabriès)의 마리냑(Marignane) 본당 브리카드(Bricard)에서 탄생
- 1818년 10월 8일 액스(Aix) 교구의 대신학교를 거쳐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
- 1819년 12월 18일 사제 서품 후 중국 사천 선교사로 임명되어 1820년 3월 파리를 출발
- 1821년 3월 19일 페낭 도착 후 신학교 교수, 싱가포르 선교사 역임 후 1822년 마카오 도착. 사천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코친차이나와 퉁king에서 2년 동안 사목하다가 1825년 3월 쓰촨성 노착
- 1836년 4월 26일 조선대목구의 부주교로 임명되고, 1837년 5월 14일 주교 서품
- 1837년 12월 18일 조선 입국 후 서울과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사목, 성하상(바오도) 등 3명(이두우, 요한, 이재의, 노마스, 최형 베드로도 추정됨)의 신학생 선발
- 1838년 12월 1일 '성모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保로 선정한 뒤 교황청에 허락 요청(1841년 8월 22일 그레고리오 16세가 '위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성 요셉'과 함께 조선 주보로 승인)
- 1839년의 기해박해 발생 후 순교자들의 행적 수집(훗날의 "기해일기")

○ 모방 신부 ○

- 1803년 프랑스 칼바도스의 바시(Vassy)에서 탄생
- 1829년 6월 13일 바이외(Bayeux) 대신학교 졸업 후 사제 서품, 고향 본당에서 보좌 신부
- 1831년 11월 18일 파리외방전교회 입회
- 1832년 3월 5일 중국 쓰촨(四川) 교구 선교사로 임명되어 파리 출발, 9

월 11일 마카오 노착

- 1833년 3월 9일 프렌스 푸간에서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조선 선교 차원
- 1834년 7월 베이징을 거쳐 허베이성 시완쓰에 도착한 다음 브뤼기에르 주교와 상봉
- 1836년 1월 13일 프랑스 선교사 최초로 조선에 입국, 4월 3일 부활대축일 미사
 - 교우촌 순방, 신학생 선발, 유망제(파치피코) 신부를 미국시킴
- 샤스탕 신부 입국 후 경기도 북동부와 충청북도에서 사목

○ 샤스탕 신부 ○

- 1803년 프랑스 디뉴(Digne)의 마르쿠(Marcoux)에서 탄생
- 1826년 12월 11일 디뉴 대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제 서품, 다음해 1월 6일 가족 이별
- 1827년 1월 13일 파리외방전교회 입회 후 삼 선교사로 임명되어 4월 22일 파리 출발
- 1828년 7월 10일 코친차이나 노착, 7월 19일 마카오 노착 후 페낭 신학교 교수로 임명됨
- 1832년 페낭 신학교 교수 재임 중 조선 선교사 차원
- 1833년 5월 페낭 출발 마카오 도착, 11월 푸젠성의 푸간 도착, 베이징을 거쳐 1834년 산동으로 가서 사목
- 1836년 12월 31일 조선 입국, 조선어를 배운 뒤 경기도 남서부와 충청남도 및 경상도 등지에서 사목

연행사와 연행로

1. 연행사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을 '조천사' (朝天使)라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도유인 연경(燕京, 즉 北京)에 간 사신이란 의미로 '연행사' (燕行使)라 했다.

청의 도유이 선양이던 시기(1637~1644년)에는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보냈으나, 임관 이후인 1645년(인조 23)부터는 모두 동지사에 통합되어 연 1회의 정기 사행으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부정기식인 임시 사행이 자주 과정되었다.

사행의 임무는 매우 복잡하였다. 모든 사행은 반드시 표문(表文 : 왕복 외교 문서)이나 자문(咨文 : 일정한 청원을 담아 올리는 글) 등 사내 문서와 조공품을 가지고 가서 조공과 회사(回謝)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행 무역을 하였다.

사행의 구성과 인원은 사행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분의 사행은 사(使) 2인(正使·副使), 서장관(書狀官) 1인, 대통관(大通官) 3인, 암물관(押物官) 24인으로 합계 30인이 워적이었고, 각 정관의 수행원을 합치면 일행의 총인원은 200인에서 300인 내외가 되었다. 정사와 부사는 정3품 이상의 중반(宗班)이나 관리 중에서 선발하였고, 서장관은 4품에서 6품 사이에서 선발하였다. 정사·부사·서장관을 '삼사' (三使)라고 칭했다. 특히 서장관은 사행 기간 중에 매일의 기록을 맡았고, 귀국 후에는 국왕에게 보고들은 것을 보고 할 의무를 지녔으며, 일행을 감찰하여 도강(渡江)할 때는 인원과 짐을 점검하였다. 삼사 이외의 정관은 대부분 사역원(司譯院)의 관리로 임명하였다.

사행은 모든 경비를 현물로 지급받았으며, 사행 도중의 국내에서의 지공(支供 : 음식을 제공함)은 연도의 각 지방에서 부담하였다. 그러나 세폐와 공물, 공·사무역을 위한 물품, 식량·사료 등 많은 짐을 휴대했으며, 많을 경우는 350포(包)를 초과하기도 했다. 병대에는 사행로가 해로와 육로가 있었으나, 청대에는 육로만을 이용했는데, 육로는 병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행사의 육로 거리는 총 3,100리의 거리며 40일의 여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50~60일이 걸렸고, 북경에서의 체류 기일을 합치면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었다.

사행은 의주에 이르러 암록강을 건너기에 앞서 정관 이하 인원·마필·세폐·노비(路費)·기타 식재물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을 '도강상' (渡江狀)이라 한다. 그리고 중국 측의 책문(柵門)에 도착했을 때는 그와 같은 사행을 중국 측의 지방관에게도 보고하였다. 이것을 '책문보단' (柵門報單)이라 한다. 그 뒤 사행이 심양에 도착하면 방물의 일부를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전달했고, 요동 도사는 이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물품을 북경에 전송하였다.

사행이 북경의 숙소인 회동관(會同館)에 도착하면 청의 역관이 이들을 영접하였다. 중국에서의 연로와 회동관의 공제(供饋 : 음식을 공급함)는 모두 청의 광록사(光祿寺)가 부담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다음 날 예부(禮部)에 표문과 자문를 전달하되, 청의 황제를 알현하는 조하(朝賀) 때에는 여러 차례 연습을 한 뒤 매우 복잡한 의식을 행하였다. 가지고 간 세폐와 방물을 예부로 보냈고, 예부에서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예부에서는 도착 후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고, 귀환에 앞서서는 상마연(上馬宴)을 열어 주었다. 황제는 국왕에 대한 회사를 비롯해 사행의 정관 선원과 수행원 30인에게 하사품을 주었다.

사행이 귀국하면 삼사는 국왕을 알현하고, 서장관은 사행 중에 보



고 들은

문건록(聞見錄)을 작성해 국왕에게 보고했다. 한 사행의 정사 이하 청관이나 수행위들도 사행의 기록을 사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1637년(인조 15)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조선에서 청에 간 연행사는 총 507회이며, 같은 시기 청에서 조선에 파견한 대조선사행인 칙사(勅使)는 169회였다.

2. 연행로

- 육로 : 한양 - 의주 - 암록강 - 심양 - 산해관 - 북경
- 해로 : 선천(宣川) 선사포(宣沙浦) - 서해 - 산동 등주(登州) - 북경
- 연행로 중 동팔참(東八站)



- 소현세자 : 1637년(인조 15) 2월 8일 무왕 하직(당시 청의 장수는 구왕 : 태종 홍타이지의 아홉째 동생), 4월 심양 도착, 1640·1644년에 일시 귀국 한 적이 있음. 1645년 2월 18일 귀국 서울 도착. 4월 26일 학실(말라리아)로 유서 / 세자부 강씨(姜氏) : 영리하고 경제에 밝아 심관(藩館, 심양아 등도서관 자리?)의 살림살이를 주도함. 1646년 1월 인조의 전복구이 득약 사건으로 강민의 형제들이 먼저 장살되고 3월 15일에는 강민이 賜死됨.
- 봉림대군(효종) : 18세 때인 1837년에 청석령을 넘다(過青石嶺)

“청석령 지났구나 초하구(草河嶺) 어디네뇨(青石嶺已過兮 草河溝何處是) / 오당캐 바단은 차기도 참데 궂은비는 무슨 일인고(胡風淒復冷兮 陰雨亦何事) / 뉘라서 내 행색(行色)을 그려 임(임금) 계신 데로 전할 것인가(誰畫此形像兮 獻之金殿裡)”<김전택의 청구영언 : 김수장의 해동가요>

- 박지원 : 1780년, 연산관을 거쳐 마운령 · 청석령 · 낭자산을 지난 뒤 <“열하일기” 도강록 · 渡江錄 중 요동새벽길 · 遼野曉行> ⇒ “너른 요동 빌 언제나 끝나려나(遼野何時盡) / 열흘을 가도 산 하나 볼 수가 없네(一旬不見山) / 샛별은 말머리에서 반짝이는데(曉星飛馬首) / 아침해가 밟이 랑 사이에서 떠오르네(朝日出田間)”

<노강록 중 호곡장론 · 好哭場論> ⇒ “산기슭에 가려서 백탑(白塔)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재빨리 말을 채찍질해 수십 보(步)를 가지 않아 막 산 기슭을 벗어났는데……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 ‘한바탕 을 만한 곳이로구나! 가히 한 바탕 을
만한 곳이야!’ (好哭場 可以哭矣)라고 말했다.”

- 차기진 : 2012년 2월 9일 <암록강에서 산해관까지 3천리 여정을 가다 종
'도산해관·到山海關'>

걸없는 지평선, 불개 노을지는 하늘

혹독한 주위, 얼어붙은 요동멀

영원한 독자의 길을 가는 소년들은 순교자의 용덕을 닮고, 영신의 복향 앞
에 찰나의 세상을 머리를 조아린다.

모방 신부와 정하상 바오도, 샤스탕 신부와 최양임 노마스

마리장성의 허물어진 성벽, 곧게 닦힌 의주 성문

그 길을 가는 순례자들은 열다섯 살 소년들의 빛이 되고, 신앙의 뉴온 황량
한 대지 너버로 내일을 향한다